

## 이상덕 청장, 프랑스에서 해외 첫 입양동포 간담회 개최

- 입양동포 정책 소개 및 지원 방향 설명, 입양단체 활동 현황 청취
- 유럽 한글학교 현지연수 참석 교사 150여명 격려 및 프랑스 주요 동포단체장과 소통

-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15-16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입양동포 간담회를 개최해 동포청의 입양동포 지원방향을 설명하고 입양동포 단체 활동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입양동포가 가장 많은 국가다.
- 이번 간담회에는 프랑스 입양동포 단체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한국의 뿌리협회와 코리아낭트협회 회원들과 프랑스 주류사회에 진출한 입양동포 50여명이 함께했다.
  - 이재동 한국의 뿌리협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프랑스를 방문해 입양동포들과 따로 간담회를 마련해준 동포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9월 협회 창립 39주년을 앞두고 동포청의 지원으로 여타 입양단체와 협력해 프랑스 전역을 아우르는 행사를 계획임을 밝혔다.
  - 코리아낭트협회 전현주 회장은 “입양인들은 한국이 뿌리라고 생각하면서 한국을 거주국에 더 알리려고 노력한다”고 언급하며 프랑스인들에게 한국 문화와 예술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입양인을 위한 식사모임, 설날, 추석 행사 개최 등의 협회 활동을 소개했다.
- 이 청장은 인사말에서 입양동포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하며 각각 입양된 경위가 다른 입양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성공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익히며 한인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대해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 이어, 최근 국내에서도 입양동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모국 정부가 진심을 다해 입양동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재외동포청(김민철 교류협력국장)은 입양동포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 및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 입양동포들은 입양동포 2세, 3세대를 위한 모국 초청연수 및 장학제도의 개설 필요성, 입양동포 2세의 한국 국적 유지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 이 청장은 같은날 오후에는 유럽한글학교협의회 교사연수에 참석해 유럽 전역의 18개국 64개 한글학교에서 참가한 150명 현장 교사들을 격려했다.
- 이상덕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느 동포사회든 최대 관심사는 ‘뿌리’라고 언급하며 한인 정체성을 가진 차세대 인재육성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같은 교사연수를 통해 한글학교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역량을 배가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 한편, 이상덕 청장은 앞서 15일 프랑스 주요 동포단체장 30여명과 간담회를 통해 유럽 국가 중 가장 역사가 깊은 프랑스 동포사회의 발전을 평가하고, 동포사회의 지속 성장을 위해 세대간 소통과 차세대 동포의 동포사회 참여를 당부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들은 해외 거주 동포들에 대한 국내 부정적 인식 개선, 복수국적 연령하향, 내년도 한불수교 140주년 준비를 위한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개진했다. 끝.

|       |                    |     |     |     |              |
|-------|--------------------|-----|-----|-----|--------------|
| 담당 부서 | 재외동포청<br>재외동포협력총괄과 | 책임자 | 과장  | 오현영 | 032-585-3195 |
|       |                    | 담당자 | 주무관 | 조성제 | 032-585-3205 |